

# 광주·전남 제조업 '고용없는 성장'

### ■ 통계청 발표 '1991~2006년 제조업 변화상'

### 업체수 15년 새 광주 176%·전남 23% 늘어

### 업체당 종사자수 되레 감소... 임금격차 심화

지난 1991년 이후 광주·전남은 제조업 생산규모가 5배 가량 커졌지만 업체당 종사자는 되레 감소하는 등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은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업종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등 양극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17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제조업 변화상(1991~2006년)'에 따르면 2006년 현재 광주의 제조업체 수는 2천149개로, 1991년(778개)에 비해 176.2%(1천371개) 증가했다.

전남은 2006년 제조업체가 2천626개로, 1991년(2천120개)보다 23.9%(506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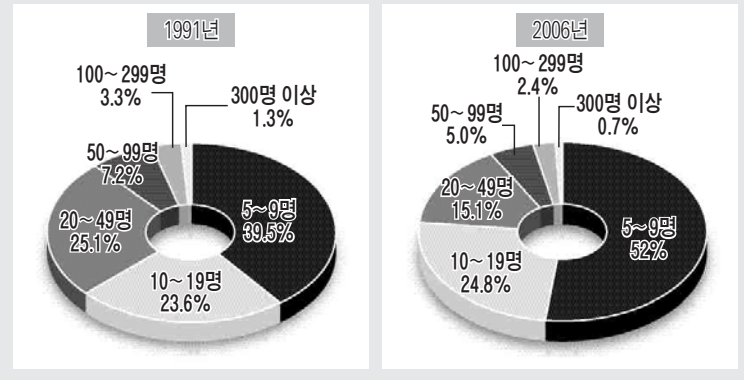
업체 수 증가는 제조업의 생산규모

확대로 이어졌다. 2006년 광주의 제조업 출하액은 18조1천560억원으로, 15년 전보다 409.1%(14조5천900억원)나 늘었다.

전남도 2006년 제조업 출하액이 60조6천220억원에 달하면서 15년새 480.9%(50조1천870억원) 급증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및 화학제품 출하액이 17조4천970억원 증가했으며, 코스믹 및 석유제품의 출하도 14조9천110억원이나 늘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생산규모 확대 속에서도 일자리는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6년 광주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6만1천961명으로, 15년간 44.4%(1만9천58명) 증가에 그쳤다. 또 광주의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2006년 28.8명으로, 15년 전(55.1

### ■ 광주·전남 종사자 규모별 제조업체 수 변화



명)보다 47.7%(26.3명)나 줄었다. 제조업의 외형이 4배 이상 커진 사이 평균 종사자 수는 '반토막' 난 것이다.

특히 전남은 2006년 제조업 종사자가 7만1천477명으로, 15년 전보다 되레 3.6%(2천633명) 줄었다. 업체당 종사자 수도 2006년 27.2명으로 22.3%(7.8명) 감소했다.

지역 제조업체의 규모별 창업활동 및 업종별 급여 등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2006년 광주·전남의 대기업(300인 이상)은 33개로 13.2%(5개) 줄었다.

반면 종업원 300인 미만의 업체는 2006년 4천742개로, 65.8%(1천882개)나 늘어나 중소기업 증가세가 뚜렷했다.

업종별 임금 격차로 날로 커지고 있다. 광주는 2006년 현재 자동차업종의 연평균 급여가 3천851만원으로, 섬유업종(1천820만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전남도 화학물 및 화학업종의 연평균 급여가 5천178만원으로, 음식료품업종(1천170만원)의 4.5배에 달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 고급스런 커피잔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 8층 가정용품 매장에서는 꽃그림을 그려 넣어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물컵·커피잔 등을 선보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판매가는 커피잔(1세트) 4만4천원, 물컵 4만원.

롯데백화점 제공

## 전층 리뉴얼 완료... '명품백화점'으로 재탄생

### 개점 10주년 맞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난 98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사진)이 18일로 개점 10주년을 맞는다.

이에 앞서 롯데 광주점은 지난 2~8월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의 명품백화점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매장과 고객편의시설 등을 최신 인테리어로 차별화했고, 층별 상품구색을 맞춘 상품군 구성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업그레이드된 매장으로 전 층 리뉴얼을 진행했다. 특히 소비자의 글로벌 감성을 반영한 수입브랜드의 확대, 토틸 코디에 따른 패션상품의 수요

증가로 차별화된 잡화매장을 신설하는 등 언제나 최신 트렌드를 체험하고 싶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백화점으로 자리매김했다.

구수희 롯데광주점장은 "국가 고객만족지수(NCSI) 5년 연속 1위,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NBCI) 1위, 전점 서비스 평가 2년 연속 1위, 대한민국 안전대상 등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타 유통업체와 차별화된 고객 감동경영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점 이후 롯데 광주점은 지역 민들과 함께하는 백화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문화·장학·자선 사업, 불우이웃돕기, 환경보전 캠페인 등 다양한 지역 사업을 지원해왔다.

광주지역 최초로 진행된 실종어린이 찾기 및 결식아동 돕기 바자회를 비롯해 소아암 어린이·백혈병 어린이 돕기, 수재민 돕기, 소년소녀 가장 돕기, 영아·재활원 봉사활동, 독거노인 가정 환경개선사업 등은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 4회째 맞는 '광산업의 날' 행사 풍성

### 시민·가족 등 2천여명 '축제 한마당'

### 내일 오후 1시30분 광주 첨단체육공원에서

올해로 4회째를 맞는 '2008년 광산업의 날' 행사가 19일 오후 1시30분부터 광주시 광산구 첨단체육공원에서 펼쳐진다.

광주일보사와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주광산업대표자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광산업의 날 행사는 광산업 관계자와 가족·시민 등 2천여명이 참여하는 축제 한마당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1부 광산업체와 유관기관·단체 체육대회에서는 52개 업체와 10개 기관이 축구·발야구·줄다리기·계주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한다.

또 광산업대표자협의회 임원진

과 유관기관,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오찬을 갖고 광산발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어 2부는 가수 남진, 코미디언 한무씨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과 함께 임직원 장기자랑, 광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공로표창식이 마련된다.

광주시장 표창을 받는 광산업발전 유공자는 심재용(글로벌광통신 부장), 정영기(선일텔레콤 과장), 정민경(링크라인아이엔씨 사원), 조금성(피피아이 주임), 나성

주(신한포토닉스 대리), 이우섭(옵테론 대리), 고혜영(에프엔엔 팀장), 박우현(우리로광통신 대리), 김태봉(포토닉솔루션 팀장), 고경탁(싸이러스 차장), 박원규(엘이디라이프 대리), 강태선(씨컴 이사), 서상준(대방포스텍 부장), 진재연(코세미 부장), 전종준(현진기업 과장), 김병근(프리스전옵틱스 대리), 이창호(유니크 부장), 이주현(한국광산업진흥회 과장), 한수욱(한국광기술원 선임연구원), 윤승호(광주테크노파크 대리)씨.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제 3자에 위임하자"

법제화 앞두고 토론회서 제기

납품단가의 조정협의권을 중소기업 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연구단체인 '중소기업살리기

모임'과 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주최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법제화 방향'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김승일 선임연구원은 최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수의 중소기업

이 납품단가 등에 관한 불만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자격 있는 제3자에게 납품단가의 조정 신청, 협의권을 위임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러한 제3자로 업종별 협동조합과 수탁기업협의회 등을

으로 들었다. 그는 나아가 납품단가를 둘러싸고 위·수탁기업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심의·조정해줄 수 있는 '업종별 상생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납품단가에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납품 계약금액의 2~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나 손해액의 2~3배의 손해배상 등을 물리는 징벌적 제재를 조정협의 의무제의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연협뉴스

## 주유소 '플라스틱' 폐지 보름째

## 지역업체 당장 큰 변화 없어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석유 제품만 팔도록 하는 '상표표시제'(플라스틱)가 지난 1일부터 폐지됐지만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업체는 아직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플라스틱을 규정한 상표표시제 고시가 없어졌지만

아직까지 플라스틱을 교체하거나 복수 플라스틱을 내걸고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같이 팔겠다고 나서는 주유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플라스틱 폐지에 따라 각 주유소는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했어도 혼합 판매 사실을 표시하면 다른 정유사

의 제품을 팔거나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팔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제품 공급경쟁이 벌어져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존 플라스틱을 떼어내고 다른 플라스틱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상당수 주유소들이 특정 정유사와 맺은 전속계약 기간이 끝나면 혼합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선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Tel: 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합 수완지구 건축상담**  
**상업용지**

**철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평당 470만)  
 2000평 22억(평당 1100만)

**수완지구개발지구**  
 이주지적  
 협의영도인택지  
 생활대역용지

**신창택지구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방 122평 80평

**전용가능한금매물**  
 자연녹지: 3800평-대형차진입가능 6차선전  
 생산녹지: 2800평-병동공단지근 특가신당

**우당임야**  
 (연수원 복지시설 골프장 측사 등)  
 담양 25만평 장성 14만평 보성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50만평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매가 17억 5천만원

**쌍촌동 260평**  
 2중주거지역 긴급처분  
 투자유망 평당 450만  
 화순읍 주거지역 2400여평  
**공장**  
 하남공단 800평

**건물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최고의 절세형 물건**

◎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철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기름값 절약만으로 심야전기 보일러를 빌려쓰는 제도!**  
**지금 즉시 신청하십시오! 최우수 보일러 경동, 일본으로 수출하는 대성!**

난방면적 (㎡)	보일러용량 (리터)	보일러용수기 (kw)	한전 불입금	생산공장 가격	현재대리점 가격	한전불입금포함 소비자가격
23~27 (7)	500	6kw	250,400	2,929,600	3,700,000	3,230,000
42~47 (13)	1000	13kw	743,600	3,456,400	4,500,000	4,070,000
49~56 (16)	1200	15kw	884,400	3,615,600	4,950,000	4,320,000
59~69 (20)	1500	19kw	1,166,000	3,634,000	5,680,000	4,720,000

\*온수기는 가족수에 따라 용량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 (100L, 200L, 300L)

**속보 주거지역 금년내 심야전기 용량제한될**  
 ※9월1일자로 69㎡이상(심야전력 25평)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축열식 심야 전력 호당 공급 용량 제한치 변경.  
 1차: 시행일 2008. 3. 3(월) 접수분 부터  
 변경전:순수주거용 시설에 한해 호당 50kw까지 공급  
 변경후:순수주거용 시설에 한해 호당 30kw까지 공급  
 2차: 시행일 2008. 9.1(월) 접수분 부터  
 변경전:순수주거용 시설에 한해 호당 30kw까지 공급  
 변경후:순수주거용 시설에 한해 호당 20kw까지 공급

심야보일러는 반영구적이고 보온력이 뛰어난 우레탄이 좋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 구입 신청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그동안 심야 전기 보일러를 못놓으신분
- 목돈이 없어서 망설이는 분 ● 지금 전화통화이면 설치완료
- 신설치후 최대 36개월 분할 납부 가능

**아직도 비싼 기름으로 난방을 하십니까?**

이제! 기름보일러 사용가정 월난방비용 400,000~600,000원 이상 사용가정

유리집·평택·안성·용인·의정부·김포·고양·성남·수원·인천·서울 사용가정 한달 난방비 약6~10만원선이면 OK

**심야보일러란?**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밤10시~아침8시까지)에 남아도는 값싼전기로 난방에 필요한 온수를 90°C까지 미리 데운 대형보온용 온수저장통에 저장한 후 하루종일 내내 지속적으로 난방하는 것을 말하며 심야 전기요금 은 일반전기, 기름값의 1/4에 불과한 저렴한 합인제 요금을 적용합니다.  
 ※심야전기요금은 기본요금 및 누진세가 없습니다.  
 ※심야전기요금은 값싼 원자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므로 값이 싸입니다.

◎ 생산공장 - 전문가가 직접 완벽시공 - 설치고객 ◎

**한국전력공사협약제품**  
**경동 대성 심야전기 사업부**

**연/중/무/휴 주·야 상담대기**

**무료상담 080-909-0088**  
**상담소장 010-9469-9373**